

한국 NGO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탐색과 제언

서유경*

지난 10여년 사이 NGO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 봐야 한다. 첫째,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과 급격한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현대정치사적 특수성에서 발원한 'NGO학'의 한국적 유용성이 완전히 소진되었는가? 둘째, 한국의 'NGO학'이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문적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 글은 한국에서 NGO학의 유용성은 소진된 것이 아니라 2세대 시민운동의 동력을 창출해야 할 변화의 시점에 있으며, 이제 NGO학은 그것의 형식과 내용을 재정비하여 보편적 학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침 해외 우수한 대학들도 우리의 NGO학과 유사한 성격과 지향성을 보이는 다분과적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재 제안 단계에 있는 가칭 '한국 NGO학-NGO섹터 협의체'의 창설과 그것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핵심문제로서 현재 한국의 NGO학과와 연계전공들이 설치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NGO학,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 NGO학 교육과정, 2세대 시민운동, 한국 NGO학-NGO섹터 협의체

*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NGO의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가 한국 대학 내 NGO학과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일부 대학과 대학원에 ‘NGO학과’가 설치된 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사례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독특한 “한국적 특수성(Sonder Weg)”을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한국 내 “NGO의 위상이나 그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기 때문이다(차명제 2013).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NGO학(NGO Studies)’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성’¹⁾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NGO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그 ‘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이해한다. 요컨대 NGO학은 바로 그러한 정치성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겨냥한 학문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NGO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 봐야 한다. 첫째,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과 급격한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현대정치사적 특수성에서 발원한 ‘NGO학’의 한국적 유용성이 완전히 소진되었는가? 둘째, 한국의 ‘NGO학’이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문적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1) 일반적으로 관련 학자들은 NGO들을 “영향력의 정치”나 “운동의 정치”를 하는 주체로 설명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시기 한국NGO들만큼 이 설명의 실효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NGO의 활동상을 “NGO 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서유경 2009; 2012).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필자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것이다. 우선 NGO학은 어느덧 15년 가까이 한국의 대학들에서 하나의 공인된 사회과학 분과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고 학사, 석사, 박사를 배출해 왔다. 그에 따라 ‘NGO학’의 인지도는 한국사회와 공중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것의 학문적 유용성 역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경희사이버대 NGO학과와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지원자의 평균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수능세대들의 ‘소신’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수능세대 지원자들이 학과를 선택한 주요 동기는 이전 한국NGO들의 국내 정치적 활동에 대한 투영이나 성찰이 아니라 지구시민사회 내 ‘NGO적’인 활동들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NGO학과들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는 교육과정의 창안이나 전환이다.

이러한 NGO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상은 우리의 두 번째 문제의식, 즉 NGO학이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문적 보편성을 담보할 가능성의 적극적인 탐색을 요구한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까라는 것인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필자는 우리가 한국 NGO학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 이유는 이러한 도전 상황이 한국 NGO학계만의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컨대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재편되어 이른바 ‘글로벌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점점 더 실체적인 활동무대로서 부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이 우리의 NGO학과 유사한 성격과 지향성을 보이는 다분과적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경영학, 정치경제학,

국제개발학, 정부학, 국제정치학 등의 분과에서 그러한 변화조짐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지의 대학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NGO학은 장차 이러한 국외 유사 학문분과들과 ‘따로-또-같이’ 하는 협업은 물론 선의의 경쟁에도 나서야 하며, 그런 방식으로 학문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신노력의 성패는 현재 우리의 한국 NGO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미래 전략 수립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이 글이 그러한 고민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하의 논의는 II. 한국 시민사회와 ‘NGO정치’ 그리고 ‘NGO학’의 탄생 배경, III. 해외 대학의 유사 ‘NGO학’ 교육과정 설치 사례 검토, IV. 한국의 NGO학 관련 교육과정 비교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어서 V. 국내외 NGO학 교육과정의 비교론적 함의에서는 향후 우리 NGO학 교육과정의 방향성 정립과 관련하여 앞의 III장과 IV장에서 제시한 해외 대학과 한국 대학의 NGO학 관련 사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VI. 제언: 향후 NGO학과 NGO섹터가 나아갈 방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한국 NGO학과들의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적극 고려할 사항들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시민사회와 ‘NGO정치’ 그리고 ‘NGO학’의 탄생 배경

우리 <1987년 민주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화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건국 이래 줄곧 그 자리에 있었지만 ‘19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비로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실체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기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새로운 공화국과 정치체제를 출범시킨 6월

민주항쟁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한 정치학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치적 자유와 인민주권을 다시 쟁취한 사건”(임혁백 2011: 22)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요컨대 우리는 6월 민주항쟁에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서구의 근대혁명, 즉 프랑스대혁명이나 러시아혁명 또는 미국혁명과 같은 상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87체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에 의해 건설된 정치체제이다.²⁾ 물론 1960년 ‘4·19 학생혁명’도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이었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약체의 제2공화국은 채 1년도 못가서 군사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고 이후 25년간 지속된 군사독재는 인민을 다시 신민(臣民)화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총체적인 마비상태였고 그 속에 ‘국민(the people)’은 있으되 ‘시민(citizen)’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87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추상적이며 익명화된 존재가 아닌, ‘시민’이라는 개별자로서 정치적으로 권능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³⁾

사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민’의 탄생은 근대혁명—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2) 이 ‘87체제’를 새로운 정치체제로 지칭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이것은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직선에 의한 민선정부, 즉 제6공화국의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시민참여형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최장집(2002)은 1987년 이전 한국의 시민사회를 “국가에 종속된 시민사회”, 이후의 시민사회를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라고 규정한다. 전자는 1987년 이전 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고유의 민주주의적 정치 잠재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후자는 정치 잠재력을 회복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배경은 한국의 경우와 약간 다르다. 주지하듯이 서구 시민사회는 신홍제3신분이 국가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은, 성격상, 경제적 공간이었다. 이것이 서구 자유주의 전통의 출발점이었고, 이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구의 시민사회는 정치와 거리를 둔 사적인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정치는 의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소수 시민대표들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전통이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비교적 비정치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⁴⁾

이에 비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태생부터가 정치적 자유를 전격적으로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적 공간이었다. 우선 한국의 특수한 산업화과정에서 몇몇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은 서구에서와 달리 국가의 규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해방과 더불어 서구에서 외삽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보스주의(Bossism)와 지역주의로 일관했고 정치인들은 늘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곧 그들의 '대의'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거부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4) 그럼에도 서구 대의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시민들이 더 많이 개입하는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구에서 대의민주의 제도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며 당시 정치참여의 두 축은 투표 참여와 선거 캠페인 활동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정치인과 정당의 선거캠페인,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접촉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70년대에는 사회운동 집단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와 거부활동처럼 당시로서는 비판례적인 성격의 정치참여 양식이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정치영역과 비정치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자발운동과 사회참여와 같은 시민활동들이 등장했고, 가장 최근에는 정치적 혹은 윤리적 소비처럼 개별화된 윤리적·도덕적 접근방식의 정치참여 양식도 출현했다(van Deth 2012: 117).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정치적 자유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줄곧 ‘국민’으로 살아 온 그들이 하루아침에 ‘시민’으로 바뀌어 정치적 주체로 탈바꿈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간극을 메워준 것이 바로 시민단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국 이래 역대 정부와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민의를 등한시함으로써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무능한 정당정치에 대한 세력임을 자처했다(조대엽 2007). 그리고 그들은 ‘민의를 대의’를 내세운 이른바 ‘NGO정치’를 펼쳤다(서유경 2009; 2012). 이 NGO정치의 주역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로써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인 정치 구태와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자 전방위적인 정치·경제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했다. 특별히 거대 시민단체들은 군소 단체들과 대단위 연대를 결성하여 일련의 원포인트 입법청원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⁵⁾

당시 연대활동의 백미이자 정점은 단연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981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였다. 총선연대는 예정된 ‘4.13총선’에 출마한 부적격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통하여 직접 선거과정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지역대표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려 했다”(임혁백 2011: 135).⁶⁾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

5) 예컨대 <공직선거법>(1994)의 제정을 필두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축이 되어 펼친 부정부패추방운동이나 여성운동 진영이 펼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과 호주제 폐지운동은 각각 <부정부패방지법>(2001), <성매매특별법>(2004), <호주제폐지법>(2005)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밖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이나 <돈세탁방지법>(2001) 등의 개정도 시민운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6)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대상자 선정기준을 부패행위, 선거법위반, 헌정과괴 반인권 전력, 지역감정 선동행위, 의정활동의 성실성,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사항의 진위(재산등록,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등 7가지로 설정함으로써 이 운동의 목표가 부패한 권위주의적 정

계 등 사회 전역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단기간에 시민 5,667 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이 답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그들이 지목한 총선후보 86명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NGO정치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성(磁性)을 띠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 ‘시민단체’라는 말은 친숙한 용어였지만 그것의 원어(原語)인 ‘NGO’라는 용어는 생소했기 때문에 사회 어디선가에서 이것에 관해 전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2009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세력의 아성 격이던 성공회대가 국내 최초로 NGO대학원을 설립했다. 때마침 1999년 서울에서 NGO세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의 주요 주관기관인 경희대학교도 2000년 국내 두 번째로 NGO대학원을 개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같은 재단인 경희학원이 개교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국내외적으로 유일한 4년제 학부과정인 ‘NGO학과’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경희대 NGO대학원과 경희사이버대 NGO학과의 초기 지원자들 상당수는 이미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특히 NGO학과에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들어온 이들은 민주화운동 혹은 운동권 활동을 위해 대학진학을 미루어 두었거나 중도 포기했던 사람들로서 자신이 축적한 현장경험에 이론적 지식을 접목함으로써 시민운동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앞서 놓친 교육기회를 만회하려는 이중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초기적 교육수요는 급속히 줄어들고 대신 수능세대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

치세력 퇴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대엽 2007: 212-3).

7) 설립 당시의 학과명은 ‘사이버NGO학과’였으나 2007년 현재의 ‘NGO학과’로 변경되었다. 2001년 3월개교와 동시에 모집한 NGO학과의 입학정원 100명을 모두 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NGO에 대한 사회적 인기와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고 있다. 이는 대다수 시민운동가들이 이미 NGO학 학위를 취득한 반면, 신세대 젊은이들이 이전의 ‘시민단체’ 활동과 차별화되는 ‘NGO’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민단체’ 활동과 ‘NGO’ 활동의 구분은 NGO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그것은 시민운동 1세대의 교육과 2세대 교육의 성격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이전의 시민운동가들에게 ‘NGO학’은 자신의 현장경험을 사후 인증하는 일종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문이었다면, 최근 젊은 NGO학도에게 NGO학은 NGO활동가로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서의 학문인 것이다. 이 점은 향후 NGO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 즉 그것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학문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하겠다. 둘째로 이 구분은 NGO학의 정치성 탈피의 과제와 연결된다. 바꿔 말해서 이 구분은 NGO정치와 NGO활동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이며, NGO학이 한국의 특수성에서 탈피하여 보편성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끝으로 이 구분은 NGO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개편 노력을 요청한다. 이런 고려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III장에서는 해외 대학의 유사 NGO학 교육과정 설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IV장에서는 한국 대학의 NGO학 관련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III. 해외 대학의 유사 NGO학 교육과정 설치 사례 검토

지난 20여 년간 세계화의 추세가 급진전하면서 지구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특히 현재 3만 여개에 이르는 INGO들이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1990년대

에 생겨났다. 2000년까지 이들 가운데 1,000여개의 단체들이 UN으로부터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공인된 글로벌행위자로 등장했다(김계동 2013: 8). 세계의 여러 대학들은 이런 가시적인 변화상에 대해 나름대로 학문적 대응방식을 보여 준다. 지역과 대응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공통된 핵심은 NGO와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 벨리에 소재한 산타클라라(Santa Clara)대학의 시민사회 연구소(Civil Society Institute)⁸⁾는 특이하게도 우수한 학부생 20여명을 선별하여 매주 학점과 별개로 강의실 바깥에서 열리는 사회철학과 사회과학 저작에 관한 강도 높은 토론 프로그램인 ‘시민사회콜로키움(The Civil Society Colloquium)’에 참여시키고 있다. 시민사회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비단 영미권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이 아니다. 핀란드 지바스킬라(Jyväskylä)대학의 사회과학·철학과에도 시민사회 석사과정 프로그램⁹⁾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의 칭화대학 공공정책·경영대학¹⁰⁾에도 NGO 연구센터(NGORC)¹¹⁾가 설립되어 벌써 15년 가까이 NGO와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방식은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GSPIA)의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NGOCS)’ 석사과정, 영국 런던정경대(LSE) 정부학과의 ‘글로벌폴리틱스(글로벌시민

8) <http://www.scu.edu/csi/>

9) <https://www.jyu.fi/ytk/laitokset/yfi/oppiaineet/kans/en>

10) <http://www.sppm.tsinghua.edu.cn/english/research/center/26efe4891f406f6b011f5ee4824e0041.html>

11) 1998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중국 NGO에서 활동할 다양한 직급에 있는 선임관리자들을 육성하고 관련규칙 및 정책체계 수립에 이바지함으로써 중국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www.chinacsmap.org/Org_Show_EN.asp?ID=562

사회) 석사과정,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학센터(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의 ‘국제자선단체 펠로우(International Philanthropy Fellows)’ 비학위과정 등이다. 아래에서 이 3가지 교육과정의 설치목적, 교육내용, 졸업 후 진로 등을 각각 살펴보자.

1.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 석사과정¹²⁾

상기한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의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석사과정; GSPIA NGOCS)의 교육목적은 “NGO들이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의 업무현장에서부터 지구촌 마을들과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간차원의 공공외교 역군을 육성하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제개발 NGO섹터에서 일할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지식과 방법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점은 ‘보조금신청서 작성’, ‘기금모금’, ‘프로그램 평가’, ‘국제개발’ 등의 개설 교과목 목록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취업사례 항목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의 학위명칭 역시 ‘국제개발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이고 세부전공은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Civil Society)’로 명기된다.

〈표 1〉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 (석사과정)

전공명	GS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Civil Society (GSPIA NGOCS)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 (석사과정) (GSPIA NGOCS)
교육목적	Much of the work that has defined change around the world has been the domai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세계화를 규정하는 작업들 대부분이 NGO영역에서 발생했다. NGOCS 전공은 NGO들이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의 업무현장에서부터 지구촌 마을들

12) <http://www.gspia.pitt.edu/Academics/DegreePrograms/MasterofInternationalDevelopment/NongovernmentalOrganizationsCivilSociety/tabid/99/Default.aspx>

<p>society (NGOCS) major prepares students for a future in a world where NGOs are committed to social change in settings from Washington, Brussels and Geneva to villages and neighborhoods around the world.</p>	<p>과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게 될 미래 세계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준비시킨다.</p>	
<p>Students acquire knowledge in management strategies, project design and evaluation, and politics; other courses provide in-depth perspectives on such topics as alleviating hunger, advocating for human rights, advancing gender equity, understanding religion and development, and promoting public health.</p>	<p>대학원생들은 경영전략, 프로젝트 설계 및 평가, 그리고 정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다른 과목들은 기아 개선, 인권 주장, 젠더 형평성 증진, 종교와 개발에 대한 이해, 공공보건 진작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관점들을 제공할 것이다.</p>	
<p>GSPIA NGOC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xperience through internship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 well as the chance to build expertise in issues such as grant writing, education or health care that will serve them well following graduation.</p>	<p>GSPIA NGOCS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용이하도록 국내외 인턴ships을 통해 경험 축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은 물론, 보조금신청서 작성, 교육, 보건과 같은 이슈들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p>	
<p>개설 교과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mediate quantitative methods - Managing emergencies & disasters - Managing people in the public non-profit sector - Financial management - Matching money with mission - Program evaluation - Management non-profit organizations - Strategic management -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 practices - Grant writing and fundraising - State building - Humanitarian intervention - Global health policy - African development seminar - Urbanis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text - Community development & focus groups - Log frame & development planning - NGOs & humanitarian disasters - Seminar: Nonprofit clinic - Seminar: Financing NGOs for development 	<p>계량 방법론 중급 긴급구조 & 재난 관리 공공 비영리섹터 인력관리</p> <p>재정관리 사업비 매칭 프로그램 평가</p> <p>전략적 경영 경제적 개발전략 & 실제</p> <p>보조금신청서 작성과 기금모금 국가체제 건설 인도적 개입 글로벌 보건정책 아프리카 개발 세미나 도시화 &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적 맥락 공동체 개발 & 목표집단들 로그 프레임 & 개발 기획 NGOs & 인도주의적 재난 세미나: 비영리 의료 세미나: 개발을 위한 NGO 재정확보</p>

	- Seminar: Urban public/Nonprofit management	세미나: 도시의 공공/비영리 경영
진로 안내	Recent job placements have included: USAID, numerous development consulting firms, and NGOs including Oxfam America, USAID, Global Links, Food Resource Bank, EGBOK Institute Cambodia, Catholic Relief Services, and Samaritan's Purse International Relief.	최근의 취업사례에는 USAID, 국제개발자문회사, Oxfam 미국지부, Global Links, 먹거리자원은행, EGBOK연구소 캄보디아 지부사무소, 카톨릭 구호 서비스, 국제 사마리탄 구호기금 등의 NGO단체들이 포함된다.

2.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학센터 비학위과정¹³⁾

존스홉킨스대의 시민사회학센터(JHCCSS)는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며 이 분과학문을 ‘시민사회학(Civil Society Studies)’로 지칭하고 있다. 센터는 “비영리섹터, 사회적 투자, 정부의 직무들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원천”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전세계의 비영리섹터(자발섹터)와 공유한다. 현재 『16개국 자료 비교 연구』, 『비영리 가치(價値) 보고』, 『미국의 비영리섹터: 입문』, 『미국의 비영리 주(州)』, 『36개국 자료』, 『매릴랜드(Maryland) 비영리 고용현황』, 『버지니아(Virginia)의 비영리섹터』, 『미국 비영리 직종 보고』, 『글로벌시민사회 지표』, 『자발행위 측정 매뉴얼』 등 300여종의 연구결과물이 나와 있다.¹⁴⁾

또한 시민사회학센터는 비영리섹터에 관한 연구작업 외에 “정부, 국제기구, 투자혁신자, 비영리섹터 동료들과 협동으로 공공, 비영리, 영리섹터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바꿔 말해서 정부, 국제기구, 투자혁신자, 비영리섹터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3) <http://ccss.jhu.edu/the-center/about-the-center>

14) <http://ccss.jhu.edu/the-center/about-the-center>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제3섹터(자발섹터)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해 ‘국제자선단체 펠로우 프로그램(Johns Hopkins International Philanthropy Fellows Program)’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CCSS에서 진행되는 비학위과정이며, 참가자들에게 “미국 자발섹터의 특성과 작동방식을 몸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섹터 내에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종사자들의 재교육과정인 것이다.

〈표 2〉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학센터 국제자선단체 펠로우 프로그램 (비학위과정)

연구 소명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JHCCSS) Johns Hopkins International Philanthropy Fellows Program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학센터 (JHCCSS) 국제자선단체 펠로우 프로그램
연구 프로 젝트 사명	<p>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is a leading source of ground-breaking research and knowledge about the nonprofit sector, social investing, and the tools of government.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ment innovators, and colleagues around the world, the Center encourages the use of this knowledge to strengthen and mobilize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of the public,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to address the complex problems that face the world today.</p> <p>The Center conducts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seek to improve current understanding, analyze emerging trends, and promote promising innovations in the ways that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business can collaborate to address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p> <p>(1) Social investing and leveraged philanthropy: New Frontiers of Philanthropy Project</p> <p>(2) The global nonprofit sector and volunteering:</p>	<p>JHCCSS는 비영리섹터, 사회적 투자, 정부의 직무들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원천이다. 시민사회학센터는 정부, 국제기구, 투자혁신자, 비영리섹터 동료들과 협동으로 공공, 비영리, 영리 섹터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p> <p>센터는 정부, 시민사회, 비즈니스가 사회적·환경적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에서 혁신을 이룩하는 연구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p> <p>(1) 사회적 투자와 지구적 자선 행위 촉진프로젝트 수행</p> <p>(2) 1991년 이래 국제적 차원</p>

	<p>Since 1991,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has mobilized research teams in an expanding array of countries to conduct analyses of local nonprofit sectors, employing methods that allow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p> <p>(3) The U.S. nonprofit sector: Nonprofit Listening Post Project, Nonprofit Economic Data Project</p> <p>(4) Tools of public action: Tools of Government Project</p>	<p>에서 비영리섹터 국가 비교연구 프로젝트 수행</p> <p>(3) 미국 내 비영리섹터의 핵심 경향과 도전점, 비영리 고용, 재정, 자원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프로젝트 수행</p> <p>(4)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 임팩트 증진을 위한 공적 직무를 연구</p>
<p>프로 그램 운영 목적</p>	<p>The purpose of this program would be to offer students and practitioners in the voluntary sector abroad the opportunity to learn first-hand about the character and operation of the American voluntary sector, to encourage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sector internationally, and to foster a greater sense of common purpose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individuals involved in voluntary institutions throughout the world.</p>	<p>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해외 자발섹터에 몸담고 있는 학생과 실무자에게 미국 자발섹터의 특성과 작동방식을 몸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섹터 내에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자발기관들에서 근무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의식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p>
<p>프로 그램 교육 내용</p>	<p>Philanthropy Fellows program applicants may choose to participate for either one semester (four months) or a full academic year (nine months).</p> <p>Participants must complete a research project related to the role or operations of nonprofit or philanthropic organizations in the U.S., often including a comparison between some facet of the U.S. nonprofit sector and that found in the Fellows' country of residence or region of interest.</p> <p>Research topics have encompassed a wide spectrum of civil society concerns such as transparency and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nonprofi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e marketization of nonprofits; charitable fund-raising; tax policy; the role of foundations; community organizing or empowerment; nonprofits and labor; and volunteerism.</p>	<p>자선단체 펠로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1학기(4개월) 또는 한 학년(9개월)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p> <p>참가자는 반드시 미국 내 비영리 또는 자선단체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며 보통은 미국의 비영리 섹터와 참가자의 출신 국가와의 비교연구도 포함한다.</p> <p>연구주제는 투명성과 거버넌스, 공공-민간 파트너십 비영리적 사회 서비스 공급 비영리(非營利)의 시장화, 자선적인 기금모금 세제(稅制), 재단의 역할 공동체 만들기 또는 권한부여 비영리와 노동, 자발주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사항들을 포함한다.</p>

3. 영국 런던정경대(LSE) 정부학과 석사과정¹⁵⁾

영국 런던정경대 정부학과는 글로벌폴리틱스(Global Politics) 석사과정에 ‘글로벌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전공트랙을 설치하여, 정부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학과, 유럽연구소가 교차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적은 글로벌폴리틱스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글로벌 정치경제, 글로벌 안보와 전쟁, 글로벌 환경, 글로벌 보건, 개발의 정치경제, 젠더정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등 50여 개 강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글로벌시민사회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 역량 신장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진학, 국제적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나 민간영역에 진출”하거나 “국내 또는 글로벌 차원의 비정부기구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준비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 런던정경대 글로벌폴리틱스 프로그램은 학문적 성격과 교육목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피츠버그나 존스홉킨스의 석사 프로그램들과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우선 성격 면에서 경제학(개발학)이나 경영학(비영리마케팅)이 아닌 정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구조 속에서 NGO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입문 수준의 강의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인턴십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추가적인 필드작업(fieldwork) 과정을 이수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영국의 대학들이 세계질서 내에서 NGO들이 담당하는 공공외교와 공공서비스의 ‘글로벌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15) <http://www.lse.ac.uk/study/graduate/taughtProgrammes2014/MScGlobalPolitics.aspx>

〈표 3〉 런던정경대 (정부학과) 글로벌폴리틱스(-글로벌시민사회) (석사과정)

전공명	LSE (Dept. of Government) Global Politics (Global Civil Society) MSc	런던정경대 (정부학과) 글로벌폴리틱스 (글로벌시민사회) 석사과정
교육목표	<p>This programme is based i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but the teaching is interdisciplinary and carried out by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European Institute. It brings together many of the unique resources of these departments into a leading, interdisciplinary programme on globalisation,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politics.</p>	<p>이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정부학과에 설치되어 있지만 정부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학과, 유럽연구소가 교차 학문적으로 가르친다. 이 과정은 세계화, 글로벌거버넌스, 글로벌폴리틱스에 관해 배우는 교차 학문적 프로그램이다.</p>
	<p>Students can also apply for the Global Civil Society stream of the MSc Global Politics, which has a second compulsory course focusing on knowledge that can enhance the strategic capacity of global civil society organisations.</p>	<p>글로벌폴리틱스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글로벌시민사회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 역량 신장에 필요한 지식에 초점을 맞춘 제2 필수과정인 글로벌시민사회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p>
	<p>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which all students must take. It draws on specialist knowledge from across the LSE's Politics staff to offer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global order, and the contemporary challenges of global politics. Students can also choose the Global Civil Society stream, in which case they must take a second compulsory course, Global Civil Society.</p>	<p>'세계화의 정치' 트랙은 대학원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것은 LSE의 정치학 교원들이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구조와 목하 글로벌폴리틱스에 대한 도전사항들에 관해 상세한 입문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글로벌시민사회'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2 필수과목인 글로벌시민사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p>
	<p>Students can choose from over fifty courses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global politics. Some of the courses focus on specific policy areas, notably global political economy, global security and war, the global environment, global health,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gender politics, and other key issues of global politics. Other courses focus on specific world regions (East, South and Southeast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and Europe).</p>	<p>대학원생들은 글로벌폴리틱스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영역들, 예컨대 글로벌 정치경제, 글로벌 안보와 전쟁, 글로벌 환경, 글로벌 보건, 개발의 정치경제, 젠더정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등 50여 개 강좌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p>

	All students must write a 10,000 word dissertation.	모든 학생들은 10,000 단어 내외의 논문 한 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진로 안내	The programme is a good preparation for further research work or for a career in education, the public services or the private sector at national, international or global levels. The Global Civil Society stream offers a good preparation for careers i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t national or global levels.	이 프로그램은 진학, 국제적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나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기 위한 훌륭한 연구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글로벌시민사회 트랙은 국내 또는 글로벌 차원의 비정부기구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훌륭한 준비과정이다.

IV. 한국의 NGO학 관련 교육과정 비교

현재 한국 대학의 학부과정에 ‘NGO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희사이버대(2001), 성공회대, 이화여대, 한일장신대(2011) 등 4개교이며, 대학원에 NGO전공 석사과정이 설치된 곳은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사회정책 및 NGO전공’, 경희대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문화정책학과 ‘NGO전공’,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NGO학 협동과정(2003년 석사과정, 2008년 박사과정)’, 성공회대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전공’과 일반대학원의 ‘아시아비정부기구학(MAINS)전공’, 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 전남대 일반대학원 ‘NGO협동과정’, 한신대 일반대학원 ‘국가와시민사회전공’,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시민단체(NGO)전공,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NGO복지정책학전공’ 등 11개교 12개 전공이다.¹⁶⁾

필자는 향후 NGO학 교육과정 관련 논의를 염두에 두고 현재 웹사이

16) 이것은 불완전한 자료이며 추후 추가조사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NGO학’ 관련 전공 과정은 대부분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다.

트에서 접근이 가능한 6개교의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본래 제시된 형태대로 제공할 것이다. 우선 학부과정에 설치된 NGO학과 교육과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의 자료를 비교한다.¹⁷⁾ 이어서 2개의 석사과정 비교 세트—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시민사회-NGO학과’와 성공회대 NGO대학원의 ‘비정부기구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성공회대 일반대학원의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과 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의 교육과정—를 각각 교육목적, 개설 교과목, 진로안내나 특기사항 등을 통해 비교해 볼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석사과정 세트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비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1. 학사과정 비교: 경희사이버대/한일장신대

〈표 4〉 경희사이버대/한일장신대 NGO학과 (학사과정)

학교명	경희사이버대학교/NGO학과 (http://www.khcu.ac.kr/department/contents.jsp?m=13126&SITE_GRP=DEPARTMENT05)	한일장신대학교/NGO학과 (http://www.hanil.ac.kr/kingkong/content/content.php?co_id=uni131)
교육목적	<p>[NGO학과는] 첫째,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국내, 아시아,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품성을 갖춘 새로운 21세기적 유형의 전인적인 시민사회지도자를 양성한다.</p> <p>둘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미디어 기술 및 활용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구비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춘 '시민 저널리스트'를 양성한다.</p> <p>셋째,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21C 지구시민시대의 차세대 국제지도자를 양성한다.</p>	<p>NGO학과는 21세기 지역 및 지구 시민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개인적 자아실현의 이상은 NGO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NGO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인력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한일장신대학교 NGO학과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지역복지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p>

17) 성공회대와 이화여대의 학부 NGO학 연계과정에 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접근이 불가능했다.

<p>개설 교과 목</p>	<p>시민정치론, 시민운동론, 현대민주주의이론, 한국정치와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방법론, NGO와정부관계, 사회문제론, 한국의NGO, NGO경영, 기업의사회적책임, 토론과협상전략, 글로벌폴리틱스, 지구시민사회와글로벌거버넌스, UN과국제NGO, 국제구호론, 국제기구실무론, 국제회의영어, 소수집단과정치, 인터넷과 사회운동, 시민저널리즘, 뉴미디어와언론, 캠페인기획, 갈등해결과위기관리, 인권과사회, 자원봉사론, 지구환경거버넌스, 청소년심리및 상담, 청소년복지, 청소년문화, 청소년육성제 도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지 도방법론,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p>	<p>NGO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 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NGO의이해(*자원봉사1-패스 과목), NGO와사회경제, NGO경영론 (실무), NGO실무영어, NGO시민운동 론, 종교와NGO(*자원봉사3-패스과 목), 현대사회와 NGO(개론) (*자원봉 사2-패스과목), NGO발달사, NGO와 지역사회(*자원봉사4-패스과목), NGO 정책과거버넌스, NGO인턴십(국내외), NGO와CSR(기업의사회적책임), 인터 넷과NGO</p>
<p>진로 안내</p>	<p>국내외 NGO전문활동가, 비영리민간단체·자원 봉사네트워크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행정기관, 기업의 사회공헌팀 및 비영리경영 분야, 광고 및 홍보분야, 인터넷 언론사, SNS 전문가, 대학원 진학 등 * 졸업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지도사 2급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부여, 사회복지학과에서 해당 과목 이수시) (3) 케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노인복지학 과에서 해당 과목 이수시) (4)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한국어문화학과 에서 한국어교육 전공 필수 교과과정 이수시)</p>	<p>졸업 후 국내 NGO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 유학(유럽과 미국, 일본과 호주, 개발도상국가 등)의 기회가 있고, 전 국의 20개 NGO영역 (국제원조, 국제 협력, 환경, 인권, 평화, 통일, 여성,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소비자권리, 다문화, 자원봉사, 협동조합, 생협, 친 환경 농업 등)에서 실무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 재학중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청소년지도 사 과목을 수강하여 청소년지도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와 청 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로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언론기관, NGO센터 나 다문화센터의 실무자,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연구자, 사회적 기 업의 CEO, 공정무역의 대표, 국제기 구의 정책관료 등에도 진출할 수 있 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통합학 문적 학문인 NGO학의 공부는 다양 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p>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학교의 NGO학과 교육과정은 유사성과 차 별성을 함께 보여준다. 우선 교육목적에 있어 경희사이버대는 ‘시민사

회지도자'를 한일장신대는 'NGO지도자'를 각각 학과가 배출할 인재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자는 보다 보편 학문적 접근방식을 후자는 보다 NGO 현장친화적인 특수 학문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설 교과목에서도 각각 확인된다. 한일장신대의 교과목 가운데 'NGO와 종교'와 'NGO와 지역사회'는 학교의 종교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희사이버대 역시 수년 전부터 'NGO인턴십' 과목의 설치를 고려한 바 있으나 신청희망자가 극히 저조하여 유아무야된 바 있다.

진로안내의 내용을 보면 두 학과 공히 현재 NGO섹터의 열악한 취업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접학문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한다는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의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권유하는데 이는 학교에 한국어문화학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중에 해외선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상당한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동 대학은 2013년 2학기에 '청소년지도사 2급과정' 트랙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학과의 존립을 위한 교육지책이었고, 한 학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단기적 부양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타학과 관련 자격증에 의존한 학생 유치 전략은 NGO학과의 학문적 정체성과 존립의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복수전공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학과는 그러한 학생의 부담에 대한 양해와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NGO학의 전문성 강화라는 학과 고유의 교육목표를 일정 정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의 NGO학과 졸업생들은 대학원 NGO학 전공자와 달리 학사학위 졸업장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평생의 생계 방편으로 삼을 개연성이 더 크다. 따라서 NGO학 자체의 자격증 발급은 학부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실용적 목표는 물론, 학부 NGO학과 자체의 존립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사료된다.

2. 석사과정 비교 1: 경희대 공공대학원/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표 5> 경희대 시민사회-NGO학과/성공회대 비정부기구학과 (석사과정)

학교명	경희대 공공대학원/시민사회-NGO학과 (http://pnc.khu.ac.kr/?page_id=34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비정부기구학과 (http://gsngo.skhu.ac.kr)
교육목적	<p><NGO정책·관리전공> 시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NGO 조직의 체계적 설계 및 효율적 관리, 나아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전공은 이러한 분야와 관련하여 NGO의 조직행동의 논리를 파악하고, 국내외 NGO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개발과 평가능력을 제고하며, 단체의 비전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비영리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p> <p><시민정치·문화전공> 국가의 패권주의와 시장의 물신주의는 20세기 문명이 드러낸 한계이다. 21세기 시민사회는 현대문명이 이뤄낸 인권, 복지, 평화, 공존, 공영, 봉사의 대안적 가치를 실현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 시민적 삶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사회과학적 성찰을 도모한다.</p>	<p>NGO학과(비정부기구학전공)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재교육을 통하여 시민사회지도자 양성 및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p> <p>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재교육 시민사회의 지도자 양성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양성 정부·기업과 '제3섹터'의 상호소통 증진 정부·기업의 NGO 관계자 교육 한국시민사회운동의 '글로벌' 관점과 글로벌 활동능력 증진 각종협회 및 단체 활동의 이론적·실제적 전문성 증대 아시아 친화적 연대교육 강화</p> <p><세부 전공> 비정부기구전공, 정치경제학 전공 실천여성학 전공, 정치정책학 전공</p>
개설교과목	<p><NGO정책·관리 전공 필수과목> NGO와정부관계, NGO전략경영, 기업과시민사회</p> <p><시민정치·문화 전공 필수과목> 인간과시민정치, 문화사회의전망, 시민사회와참여의예술</p> <p><선택과목> 사회과학방법론, 정체성의정치, 사회정의론, 역사와개혁, 문화정치론, 한국인의정치적상상력, 문화기획론, 민주주의의역사와미래, 문화다원주의, 탈현대문화와대안사회, 국가와시민사회, 시민사회와정치참여</p>	<p>사회운동과사회이론, 세계사회와현대사상, 국제연대실습, 미국과세계체제론, 아시아 시민사회론, NGO정책과정론, 현대자본주의와대안체제론, 공동체와협동조합, NGO/ NPO경영론, 자원봉사론, NGO기획강좌, 아시아인권과민주주의, 인권과민주주의, 평화학개론, 환경이론과환경정치, 여성학특강, 생태주의, 한국여성운동론, 여성학이론, 세계화와노동, 지구적빈곤과NGO, 국제개발협력과NGO, 해외 NGO연수</p>

	<p>NGO와지방자치, 공동가치, 현대성의윤리, 글로벌어젠다, 국가간의윤리, 비교시민사회론, 비영리마케팅, 비영리재정관리, 사회복지와시민사회, 시장과시민사회, 집단행동과공공선, 세계화의정치경제, 언론과시민운동, 자원봉사관리론, 비영리리더십, 정보화와시민사회, 주요NGO사례특강, 중재와협상, 페미니즘과성차, 한국시민사회론, 사회운동론, NGO와국제평화, NGO와미래공동체, NGO와사회적자본, NGO와인권, 종교와시민사회, NGO와지속가능한개발, NGO와국제개발, NGO와여성, 개발협력의정치경제학</p>	
<p>특기 사항</p>	<p>시민사회 · NGO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는 공통필수과목인 현장연수(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단체 상근자는 재직증명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2기수부터 수강신청 가능함.)</p>	<p>1) 4학기제로서, 1학기동안 해외 NGO 연구 가능: 국내 시민사회단체활동의 국제화를 위하여 해외 NGO 및 관련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인턴 혹은 연구원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일정한 정원 내에서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 논문작성을 위한 지원체계: NGO에 적합한 연구보고서형 논문(조사논문) 작성을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3) 관심에 따른 다양한 전공 개설: NGO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개인의 관심에 따라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대학과 시민사회의 연계 강화: '성공회대학교 아시아 NGO 정보센터',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대학'과 연계하여, '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교사연수프로그램' 등 중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p>

1999년 서울에서 'NGO세계대회'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2000년 문을 연 경희대 NGO대학원은 성공회대 NGO대학원과 더불어 'NGO학'의 양대 산맥으로 존재해 왔다. 이 두 대학원이 양대 산맥인 까닭은 전자는 한국시민사회의 온건보수적 성향을 후자는 진보적 성향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경희대 NGO대학원은 동 대학의 행정대학원과 통합하여 공공대학원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동 대학원 내에 ‘시민사회-NGO학과’와 ‘글로벌거버넌스학과’를 개설했다. 반면에 성공회대 NGO대학원은 ‘NGO학과(비정부기구학과)’는 비정부기구전공을 비롯하여 실천여성학전공, 정치정책학전공, 정치경제학전공 등 4개의 세부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경희대 ‘시민사회-NGO학과’와 성공회대 ‘비정부기구학과’의 비정부기구전공의 교육과정만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교육목표 측면에서 경희대는 ‘NGO정책·관리전공’을 통한 NGO 활동 관련 실무교육과 ‘시민정치·문화 전공’을 통한 ‘철학적·사회과학적 성찰’을 지닌 인문주의자 양성이라는 두 가지 탈정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성공회대는 보다 실천적이고 한국시민사회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재교육을 통하여 시민사회지도자 양성 및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교육목적으로 제시한다. 두 학교의 개설 교과목 내용은 대체로 각자의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성공회대의 경우에는 한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해외 NGO 및 관련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인턴 혹은 연구원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든지 “일정한 정원 내에서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현장·친화적 접근법을 보여 준다.

3. 석사과정 비교 2: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MAINS/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

〈표 6〉 성공회대 MAINS/아주대 NGO학과 (석사과정)

학교명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MAINS) http://gs.skhu.ac.kr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 http://www.ajou.ac.kr/kr/uni/gsis.jsp
교육목적	<p>MAINS의 기본 취지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과제를 1년 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과정을 통하여 모색하여 아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MAINS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여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학문적, 운동적, 인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전 세계적으로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3자 균형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의 주동력인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NGO활동, 비영리단체 경영, NGO의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국제NGO분야에서의 활약,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각 국가정부와의 거버넌스 집행분야 등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NGO학을 전공해야 할 것이다.</p>
개설교과목	<p><필수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지도 개별연구 (Tutorials with academic director) • 아시아 NGO 연구 (A Seminar on Asian NGOs) • 연구방법론과 논문작성 (Research Methodology and Thesis Writing) • 한국사회이해하기/경험하기 (Understanding/Experiencing in Korean Society) • 논문작성(Thesis Writing) <p><선택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발전과 NGO (World Development and NGOs) •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발전 (Democracy,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 비판적평화연구와국제관계론 (Critical Peace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Human Resources Management NGO and Social Movement Strategy and Leadership in NGOs Civic Volunteer Movement and NGO Social Marketing and Finance NGO and Civic Edu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NGO in the Age of Information Korean History Contemporary Korean Society NGO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Development Theories and NGO Korean Politics Activities of International NGOs Korean Language I, II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NGO Research Methods NGO and Modern Society Government and NGO Relations Public Policy and NG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와사회운동 (Social Problems and Social Movements) • 국제인권론 (Global Human Rights) • 생태와 사회운동 (Ecology and Social Movement) • NGO 관리론(NGO Management) • 아시아의민주주의와민주화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Asia) • 아시아분쟁과평화구축 (Conflict and Rebuilding Peace in Asia) • 현대한국사와과거청산절차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Process of Past dealing) 	<p>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Policy Practices</p> <p>출처: (http://gsis.ajou.ac.kr/gsis/AcademicandNGOInfo/A_Programs.jsp#a2)</p>
<p>특기 사항</p>	<p>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1년 6개월 동안 석사학위를 마치는 과정으로 2007학년도에 개설하였습니다. MAINS는 다양한 강의와 한국 내 단체 및 기관 방문,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지막 학기에 집중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아시아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MAINS는 전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며 석사논문도 영어로 작성합니다.</p> <p>MAINS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네트워크단체인 ARENA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5.18기념재단, 환경재단에서 장학금을 기탁해 학교,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MAI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현재 아시아에서 초청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여 아시아 시민사회지도자들이 MAINS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p>	<p>신입생들에게는 50~100%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매 학기 재학생들의 90%이상 이 성적에 따라서 수업료의 50%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국제대학원의 입학자격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학생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영어구사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p>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MAINS)와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비교 세트이다. 두 학교의 석사프로그램은 전원 외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 측면에서 볼 때 두 프로그램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성공회대가 아시아 지역 10여 개국의 학생들에게 먼저 민주화운동에 성공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경험을 전수하려는 목적성을 띠고 있는 반면, 아주대의 경우는 외국의 개발학 교육과정을 한국적 맥락에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회대 프로그램은 “한국 내 단체 및 기관 방문,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현장-친화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반면, 아주대 프로그램의 경우는 순수하게 강의실 학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V. 국내외 NGO학 교육과정의 비교론적 함의

1. 국내 NGO학 토대의 한국적 특수성과 탈정치화 현상

사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NGO학’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공적으로 일단락된 결과 한국의 권능화된 시민사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새로 형성된 시민공화주의적 정치적 토양 위에서 다양한 시민단체 주도의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운동들이 꽃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로 불린 한국의 NGO들은 이렇다 할 이론적 토대도 갖지 못한 채 전방위적 사회개혁운동에 뛰어 들었으며 그것이 NGO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던 듯하다. 그러나 앞선 민주화운동과의 연장선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운동에 몰입했던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채로운 시민운동의 성과가 점차 가시적인 형태

로 나타나자 다른 어떤 방식보다 즉각적인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민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펼치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으며 그 욕망에 대한 대답이 바로 대학에 NGO학과를 개설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분과로 등장한 NGO학과의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 조직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정치경제학, 페미니즘 등의 인접학문으로부터 가용한 요소들을 모두 차용하는 형태로 급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여 생겨난 이 최신 학문으로서 NGO학의 최우선적 목표는, 짐작컨대, 1990년대 한국의 특수한 시민운동이라는 현상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토대를 수립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경희사이버대 NGO학과나 성공회대 비정부기구학과와 교육과정에 그러한 타분과 이론의 차용과 사후정당화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성공회대의 경우는 교육목표에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재교육을 통하여 시민사회지도자 양성 및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2011년 설치된 한일장신대 NGO학과의 교육과정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지도자’라는 용어 대신 ‘NGO’와 ‘NGO지도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NGO 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NGO의 활동범위를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이전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성을 탈피한 NGO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NGO학의 탈정치화 현상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한국 시민운동의 운동의 기회구조가 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 이후 시민단체들의 NGO정치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나 2004년 ‘제2기 총선시민연대’, 2006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 2008년 ‘대운하백지화운동’ 등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런 반면 2008년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는 시민운동 진영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유리현상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조직하는 정치집회들은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변화상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탈정치화의 시점에 도달한 사실과 동시에 NGO학의 탈정치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례로 2011년 설치된 한일장신대 NGO학과의 지역NGO 활동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추이를 반영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기존의 NGO학과들이 교육과정 개편을 적극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 본 국외 유사 NGO학의 3가지 접근법은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2. 국외 ‘유사’ NGO학의 3가지 차별화된 접근법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NGO학’과 유사한 해외 대학의 전공으로는 피츠버그대에 설치된 ‘NGO-시민사회’ 석사과정과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학센터에 설치된 ‘국제자선단체 펠로우’ 비학위과정과, 영국의 런던정경대의 ‘글로벌정치(글로벌시민사회 트랙)’이 있다.¹⁸⁾ 이 3가지 전공은 각기 NGO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며 그에 따라 특화된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 변화를 규정하는 작업들 대부분이 NGO영역에서 발생했

18) 그밖에도 페얼리디킨슨(Fairleigh Dickinson) 대학의 ‘UN/NGO Pathways Program’이 있으나 이 글의 완성 이후에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논의에서 누락되었다.

다. NGOCS 전공은 NGO들이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의 업무현장에서부터 지구촌 마을들과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게 될 미래 세계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준비시킨다”라는 피츠버그대의 GSPIA NGOCS(비정부기구-시민사회) 과정은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혹은 공격적인 민간공공외교 분야 선점을 노린 대학당국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용이하도록 국내외 인턴십을 통해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 교육, 보건과 같은 구체적인 현장실무와 관련된 전문성 습득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개발학적 접근법의 진수를 보여준다.

둘째, 존스홉킨스대의 CCSS(시민사회학센터)는 비영리섹터(제3섹터, 또는 자발섹터)를 새로운 ‘경제섹터’로 인식하고 연구한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섹터’ 유급 취업자의 숫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미국 내 비영리섹터 유급 취업자는 1,070만 명 또는 미국 내 전체 민간영역 취업자의 10.1%였다.¹⁹⁾ 이 사실은 비영리섹터가 미국 국가경제의 중요한 핵심축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10인 중 한 명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활동 영역임을 증명한다. CCSS는 비영리섹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식의 산실이며, 센터의 비영리경영과 관리에 관한 신지식은 정부와 국제기구 자문과정과 ‘국제자선단체 펠로우’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비영리섹터의 종사자들의 재교육 과정에 반영된다. 또한 CCSS는 프로그램 수료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적 자발섹터 네트워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지구적 비영리섹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런던정경대의 ‘글로벌정치(-글로벌시민사회)’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경우는 국제정치적 접근법을 보여주는데 이 접근법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적 세

19) The Johns Hopkins Nonprofit Data Project, Nonprofit Employment Bulletin NO. 39

계화의 물결 하에서 각국 정부의 힘과 권위가 초국적기업이나 NGO들로 전이되는 현상과 글로벌거버넌스 구조의 출현에 따른 NGO들의 국제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제정치학 분야의 대응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치적 접근법은 글로벌거버넌스학과와 연계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글로벌거버넌스 학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한 경우라고 하겠다.

VI. 제언: 향후 한국 NGO학과 NGO섹터가 나아갈 방향

한국 ‘NGO학’의 탄생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재탄생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진화과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원한 독특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특수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지배력을 잃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 NGO학은 존립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한국에서 NGO학을 가르치는 학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음 4가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제언을 하는 것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NGO학은 이제 그것의 태생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그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요인이 이 방향성을 지원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전 한국 시민운동 1세대의 교육과 재교육 측면의 NGO학에 대한 수요가 거의 소진된 반면, 차세대 시민운동을 겨냥한 NGO학의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대학의 국제개발학, 비영리섹터 경영, 국

제정치 분야 등에서 한국의 NGO학과 유사한 전공과정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는 한국의 NGO학과가 향후 학점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콜로키엄 등을 통해 한국적 특수성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NGO학이 기존의 인접 학문이 제공하는 자격증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자체의 자격증 제도를 구비함으로써 독자적인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가칭 ‘공익활동가’ 자격증 제도를 제안한다. 우선 이 제도는 NGO학 전공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이론 학습에 병행하여 NGO 단체에서의 현장실습 과정 이수를 통해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인 동시에, 그간 서로 유리된 채로 존재해 온 NGO학-NGO섹터의 상호침투성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셋째, 이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추진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기구가 필요하다. 가칭 ‘한국NGO학-NGO섹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의 근본 목적은 한국 NGO학-NGO섹터의 건강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한국NGO학회의 산하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기구가 설립되면 장차 NGO학과 NGO섹터의 공식적인 대외협력 창구 역할과 NGO학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 활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 및 국회 로비활동을 비롯하여 NGO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표준화 작업, 공동학점제와 교환학생제 방안 마련, 장학생 선발, 학술논문공모, NGO활동 체험수기 컨테스트 등 주관, NGO학과들 간의 교류(공동MT, 체육대회, 해외NGO탐방 등의 프로그램 공유) 촉진, NGO학-NGO섹터를 아우르는 ‘NGO 관련자 네트워크’ 구축, NGO학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 학술연구재단,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 다양한 활동 등등이 여

기 포함된다.

끝으로, 이 협의체가 궁극적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자문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 NGO섹터 전체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페얼리디킨슨(Fairleigh Dickinson) 대학은 UNDP(유엔개발기구)에 등록된 고등교육NGO로서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지위를 바탕으로 UN과 긴밀한 연계활동을 벌이면서 글로벌거버넌스 체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향후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와 관련하여 유용한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계동(역)(2013).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원저: Andrew Heywood, *Global Politics*. 2011).
- 서유경(2009). “글로벌거버넌스 시대 한국 NGO의 정치적 역할 재규정.”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6(3).
- _____ (2012). “하나 아렌트 정치사상에 비취 본 1987년 이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52(3).
- 이행(역)(2006). 『민주주의의 역설』. 서울: 인간사랑.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 임혁백(2009). 『신유목적 민주주의: 세계화·IT혁명 시대의 세계와 한국』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11).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동진(2012).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서울: 박영사.
- 조대엽(2007). 『한국의 시민운동과 NGO: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서울: 아르케.
- 차명제(2013). “한국 NGO학과의 존재론적 고민과 전망.” 한국NGO학회-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공동학술대회(2013. 12. 28.) 발표문.
-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van Deth, Jan, et al. (eds.)(2012). *New Participatory Dimensions in Civil Society: Professionalization and Individualized Collective Ac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경희대 공공대학원/시민사회-NGO학과: http://pnc.khu.ac.kr/?page_id=341
- 경희사이버대학교/NGO학과:
http://www.khcu.ac.kr/department/contents.jsp?m=13126&SITE_GRP=DEPARTMENT05
-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국제업무 대학원 석사과정:
<http://www.gspia.pitt.edu/Academics/DegreePrograms/MasterofInternationalDevelopment/NongovernmentalOrganizationsCivilSociety/tabid/99/Default.aspx>
- 산타클라라(Santa Clara)대 시민사회연구소(Civil Society Institute):
<http://www.scu.edu/csi/>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MAINS): <http://gs.skhu.ac.kr>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비정부기구학과: <http://gsngo.skhu.ac.kr>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 <http://www.ajou.ac.kr/kr/uni/gsis.jsp>

영국 런던정경대 정부학과 글로벌정치(-글로벌시민사회) 석사과정:

[http://www.lse.ac.uk/study/graduate/taughtProgrammes2014/
MScGlobalPolitics.aspx](http://www.lse.ac.uk/study/graduate/taughtProgrammes2014/MScGlobalPolitics.aspx)

존스홉킨스 대 시민사회학연구소: <http://ccss.jhu.edu/the-center/about-the-center>

중국 칭화대 공공정책·경영대학:

[http://www.sppm.tsinghua.edu.cn/english/research/center/
26efe4891f406f6b011f5ee4824e0041.html](http://www.sppm.tsinghua.edu.cn/english/research/center/26efe4891f406f6b011f5ee4824e0041.html)

중국 칭화대 NGO연구센터(NGORC):

http://www.chinacsrmap.org/Org_Show_EN.asp?ID=562

페얼리디킨슨대 UN/NGO Pathways Program:

<http://view.fdu.edu/default.aspx?id=6840>

핀란드 지바스킬라(Jyväskylä)대학 사회과학·철학과 시민사회 석사과정 프로그램:

<https://www.jyu.fi/ytk/laitokset/yfi/oppiaineet/kans/en>

한일장신대학교/NGO학과:

http://www.hanil.ac.kr/kingkong/content/content.php?co_id=uni131

Abstract

In Searching for the Practical Ways of Improving
the Present Obtuse Curricula of the Korean NGO Studies

You-Kyung Suh
(Kyung Hee Cyber University)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NGO Studies has noticeably decreased in our society. As a result, some of its departments have changed their names into something else or merged with other departments not to mention the total abolishment of its departments. Those who still maintain their names are pondering on their next moves. At this juncture, the following two important questions need to be asked: first, has the usefulness of the NGO Studies grown out of the successful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rapid growth of civil society of S. Korea as well as its nuanced political history of late totally exhausted?; and, second,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the Korean NGO Studies to acquire an overarching academic universality beyond the Korean soil?

The strong argument in this paper is that the usefulness of the NGO Studies has not exhausted but arrived at a turning point when it must create strength required for the 2nd civic movement by reshaping its forms and contents. In this connection, it is worth taking into account that many overseas universities are presently responding to the timely demands of the would-be students by providing various interdisciplinary curricula akin to the Korean NGO Studie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nd orientations. In conclusion, I propose that we create 'The Korean Consortium for the NGO Studies-NGO Sector' to take up the mission of making the curricula more sensitive to the current changes in demand for the NGO Studies.

Key Words: NGO Studies, Korean contextual specificity, NGO Studies Curricula, 2nd generation civic movement, the Korean Consortium of NGO Studies-NGO Sector

<논문신청일: 2014.5.9. / 논문심사일: 2014.5.12. / 게재확정일: 2014.5.27.>